

# 미래워크숍을 활용한 진로직업상담가의 미래인식과 미래역량 및 미래적응력 변화 탐색

염인숙<sup>1</sup>, 임금희<sup>2\*</sup>

<sup>1</sup>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직업학과 박사과정 수료, <sup>2</sup>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직업학과 박사과정

## An Investigation on the Future Recognition of Career Counselors and their Future Competency and Future Adaptability change by using the Future Workshop

In-Sook Yeom<sup>1</sup>, Geum-Hui Lim<sup>2\*</sup>

<sup>1</sup>Ph. D completion, Graduate School of Vocational, Kyonggi University

<sup>2</sup>Ph. D student, Graduate School of Vocational, Kyonggi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미래워크숍을 활용하여 진로직업상담가의 미래인식과 미래역량을 도출하고 미래적응력 향상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진로직업상담가 25명을 대상으로 미래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서면 작성된 자료와 미래워크숍에서 진행된 토론 내용을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단어 빈도분석과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고, 합의를 통해 주제어 도출을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미래인식 키워드는 로봇, 인공지능, 여가, 교육, 편리, 장애인 등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미래노동현장에서는 첨단 기술로 인한 변화를 가장 많이 전망했다. 셋째, 진로직업상담 현장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 진로직업상담사와 로봇상담사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넷째, 진로직업상담가의 미래역량으로 정보처리능력, 전문상담능력, 의사소통능력, 윤리의식이 도출되었다. 끝으로 미래워크숍 참여 이후 진로직업상담가의 미래적응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미래역량은 진로직업상담가의 직무교육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진로직업상담가, 미래워크숍, 미래인식, 미래역량, 미래적응력

Abstract This investigation was conducted to derive future recognition and future competency of career counselors using future workshops and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improving future adaptability. For this purpose, the future workshop was conducted for 25 career counselors and the data written and the discussion contents of the future workshop were analyzed. For analysis, word frequency analysis and corresponding sample T-verification were conducted, and the main words were derived through consensus. The results, First, the keywords of future recognition showed high frequency of robot, artificial intelligence, leisure, education, convenience, and the disabled. Second, the future labor sites projected the most changes due to high technology. Third, at the career counseling site, professional career counselors and robot counselors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e expected to appear. Fourth, future competencies of career counselors were derived from information processing ability, professional counseling ability, communication ability, and ethical consciousness. Finally, it was confirmed that the future adaptability of career counselors increases after participating in future workshops, and the future competencies derived from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for job training of career counselors.

Key Words : Career Counselors, Future Workshop, Future Recognition, Future Competency, Future Adaptability

\*Corresponding Author : Geum Hui Lim(moi0204@naver.com)

Received August 5, 2019

Accepted November 20, 2019

Revised September 20, 2019

Published November 28, 2019

## 1. 서론

근대의 과학기술의 발전은 많은 예측을 훨씬 뛰어넘는 빠른 속도로 사회전반을 변화시키며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고, 소득의 증가, 물질의 풍요 등의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회시스템은 점점 복잡해졌고, 빈부격차의 심화, 환경파괴, 자원고갈, 물질만능주의와 도덕적 해이 등의 많은 사회적 문제를 불러오기도 했다. 이렇게 기술의 발전은 기대와 우려 속에 앞으로도 사회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로 언급되고 있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발달로 인간 고유 영역으로 지목되었던 지식 노동 분야까지 기계로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노동시장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옥스퍼드대학교 마틴 스쿨의 Frey & Osborne(2013)은 미국 노동시장에서 2010년 기준으로 향후 10-20년 내에 컴퓨터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70% 이상인 고위험 직종에 종사하는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의 47%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1]. 또한 WEF(2016)는 2015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에서 7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 51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2,3].

미래 직업세계의 변화는 기술발전 뿐만 아니라 고령화, 세계화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어 이러한 미래 노동시장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내담자들을 노동시장으로 이끌 진로직업상담가의 미래사회에 대한 준비와 인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4,6]. 그러나 진로직업상담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연구에서는 현 시대에 나타나는 이슈 및 현장에 초점을 두고 있어 미래사회에 대한 변화를 인식하고 상상해 볼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다.

더욱이 진로직업상담 현장에서는 미래와 현재를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상담기법을 적용해야 한다고[6] 보고되고 있음에도 진로직업상담가들의 미래인식 및 미래역량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이들의 역량을 탐색한 선행연구들에서도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7-10].

다만 일부 선행연구는 진로직업상담가가 현재의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였다[5,6]. 특히, 장주희 외 (2013)의 연구에서는 진로직업상담가들이 내담자 또는 학습자에게 미래사회의 어떠한 가치를 전달할 것인지 스스로 고민하고 준비해야하며, 이러한 가치전달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미래인식을 바탕으로 한 상담역량이라고 보았다[5]. 따라서 진로직업상담가

는 스스로의 미래인식 수준을 올려 내담자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줄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최근 '미래워크숍'을 활용하여 특정 대상의 미래인식과 미래적응력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미래워크숍은 미국 하와이대학의 Dator 교수(2009)가 개발한 방법으로 국내에서는 박성원, 황윤하(2013)의 연구에서 처음 활용되었으며, 그 활용도와 효과성을 입증받았다[3,4].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예비 초등학교 교사인 교육대학원 학생[4], 특성화 고등학교 교사[3], 서울지역 청년(20~34세)[11], 특성화고등학교 학생([12])을 대상으로 미래워크숍을 활용하였다. 미래워크숍 결과 모든 연구에서 참여자들의 미래인식 수준 및 미래적응력이 높아졌다고 보고되고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았을 때 진로직업상담가를 대상으로 미래워크숍을 활용하여 이들의 미래인식 수준을 높이고, 미래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진로직업상담가의 미래역량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래워크숍을 통한 진로직업상담가의 미래적응력의 긍정적인 변화도 구명해 보아야 한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미래워크숍 방법 및 도출된 미래역량은 향후 진로직업상담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연구 내용을 구성하는데 있어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직업상담가의 미래인식 속에 나타난 주요 단어와 미래사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둘째, 진로직업상담가가 인식한 미래 노동시장 및 직업상담 현장의 모습은 어떠한가?

셋째, 미래 상담현장에서 진로직업상담가에게 요구되는 직무역량은 무엇인가?

넷째, 미래워크숍은 진로직업상담가의 미래적응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 2. 이론적 배경

### 2.1 미래인식

미래인식은 미래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인지 및 기대를 말한다[14]. Bright(2017)는 다가올 미래사회의 변화와 적응, 성장을 강조하면서 변화의 지속성, 작은 변화의 중요성, 미래지향성, 변화의 급진성, 조절욕구 등을 변화인식도(Change Perception Index)라고 개념화하였다[13].

박성원, 황윤하(2013)는 사회변화가 극심할 때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책임을 지는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하였다[11]. 신지애(2018)는 조화로운 진로발달을 위해서 미래에 대한 생각이 중요하고, 이를 통해 진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14]. 즉,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미래에 대한 적응력과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높은 미래인식 수준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미래인식에 대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참여자들에게 현재와 미래에 관한 인식을 긍정과 부정으로 표현하도록 한 후 인식의 차이에 따라 참여자들을 4개 그룹(현재긍정-미래긍정, 현재긍정-미래부정, 현재부정-미래긍정, 현재부정-미래부정)으로 분류하여 미래워크숍을 진행하였다. 미래워크숍 내용을 분석한 결과 참여자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부정적 우려를 해보는 것만으로도 개인의 태도와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11,12,15,17].

신지애(2018)는 대학생의 미래인식을 다섯 개의 하위 범주(부정, 발전, 긍정, 편리, 중립)로 측정한 결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을 확인하였으며, 미래인식과 진로준비행동을 4개의 유형(미래부정인식 활동형, 미래긍정인식 활동형, 미래부정인식 저활동형, 미래긍정인식 저활동형)으로 나누어 진로상담 개입 방안을 제시하였다[14]. 신홍기(2018)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미래사회의 준비를 하고자 할 때, 미래인식은 미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데 미래 청소년정책이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8]. 안운정, 임윤서(2017)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학생의 긍정적 미래인식을 확인하였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전공과 진로연관성의 차이도 유의미 하였다. 또한, 변화하는 미래에 따라 전통적인 진로상담의 틀을 벗어나 적합한 상담 개입 방안 진로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19].

장현진(2019)은 미래워크숍을 통해 미래사회와 직업에 대한 상상 활동을 진행하여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인식과 행동 개선에 효과성을 확인하였으며, 미래적응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4]. 또한, 이태식 외(2018)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긍정적 미래관은 그들이 제공받은 교육이나 미래교육의 결과인 사회적 만족을 조절하는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20].

한편, 최근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전반의 변화에 대해 인식하고 미래사회 대비에 필요한 미래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래워크숍과 더불어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는 교과목 융합을 통해 미래역량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인 미래문제해결프로그램(Future Problem Solving Program, FPSP)과

융합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미래문제해결프로그램(Future Problem Solving Program, FPSP)은 Torrance(1974)가 영재들조차도 미래지향적인 자세와 창의성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에 착안하여 개발한 것으로 미래주의, 창의적 문제해결과정, 팀워크 활동이 프로그램의 핵심이다[21]. FPSP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일에서의 도전을 다루면서 창의적인 사고방법과 문제해결과정을 통해 미래대처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22]. FPSP를 활용한 이승혜(2012)의 연구에서는 참여 학생들의 교과 성적과 더불어 유창성, 융통성, 정교성,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21].

교과융합프로그램은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미래핵심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방안으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학교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23]. 이와 관련한 오찬숙(2018)의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운영 결과 실험 집단에서 자기주도 학습능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력 등의 미래핵심역량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24].

## 2.2 진로직업상담가의 직무역량

개인의 특성으로 역량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Robert White(1959)는 역량을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으로 타고난 것이라기보다는 길러지고 학습되어지는 것으로 이해하였다[25].

직업세계에 있어 핵심역량은 대부분의 직업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며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직무역량은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성공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인재채용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개인의 진로결정과 취업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진로직업상담가의 직무역량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육동인(2017)의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직업상담종사자의 직무역량에 대한 연구에서는 직업상담종사자가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술에 있어서 직업정보에 대한 분석능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태도에 있어서는 적극, 수용, 공감, 경청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요소로 도출되었다. 특히, 직업상담의 분야에서는 ‘의사소통능력’, ‘직업심리’, ‘직업상담’ 등이 핵심능력으로 꼽혔다. 또한, 네트워크분석을 통해 직업상담종사자의 실질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직무수행에서는 능력, 분석, 직업, 상담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쓰이는 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시되는

능력에 있어서는 분석, 프로그램, 의사소통, 직업능력개발의 단어 사이에서 긴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6].

유현실, 김창대 (2011)는 전문가 패널 32명을 대상으로 3회에 걸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여 진로상담전문가의 역량 모형을 탐색하였다. 확정된 진로상담전문가 역량 모형은 3개의 역량군, 14개의 역량요소, 49개의 역량지표로 구성되었다. 가중치 평균 결과 전문가 패널들은 모두 '직무지식·수행 역량군', '태도·개인자질 역량군', '이론지식 역량군'의 순서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전문가 패널들은 직무지식수행 역량군에서 진로상담역량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진로검사역량, 진로정보역량, 진로프로그램역량 등도 진로상담전문가에게 요구되는 공통역량으로 뽑았다. 개인자질역량요소에서는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이 의사소통능력, 개방적 태도와 함께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를 받았다. 전체 역량 요소에 대한 복합 가중치 분석결과 개인자질역량과 더불어 성찰 및 자기개발역량 요소를 전문가 패널들은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지각하고 있었다[27].

진로직업상담가들의 역량진단을 위한 검사를 개발하기 위해 진행된 김수향, 탁진국(2011)의 연구에서는 진로 및 직업상담가 16명의 심층면접을 통해 역량문항을 59개를 도출했다. 또한 도출된 질문을 활용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에 대해 6개의 역량요인을 최종 확정하였는데 여기에는 진로 및 직업 정보관리능력, 전문가 정신, 진로 및 직업상담능력, 내담자에 대한 긍정적 태도, 진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능력, 진로상담에 대한 전문지식이 포함된다. 6개의 역량요인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한 결과, 성인과 대학생대상 상담자들에게는 진로 및 직업 정보관리능력, 청소년대상 상담자들에게는 진로상담에 대한 전문지식이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7].

### 2.3 미래워크숍과 미래적응력

미래학은 미래에 일어날 다양한 가능성을 예측하면서 사람들이 희망하는 미래의 모습은 무엇인지 찾아내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학문으로 정의할 수 있다. 미래연구의 대상으로는 인구의 변화, 에너지 고갈, 민주주의 같은 정치 제도, 복지 환경, 인간 삶의 질, 경제 문화, 교육, 청소년, 여성, 과학기술 등 사회전반의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다[12]. 미래연구의 목적은 예견과 예측을 통해 미래에 대한 대략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대안미래와 비전을 제공하며, 재난과 위협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28].

최근 미래연구에서 자주 활용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미래워크숍이다. 미래워크숍은 학교현장 뿐만 아니라 일반인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하와이대학 하와이미래학연구소의 Dator(2009)가 미래연구 방법으로 처음 활용 하였다[29]. 미래워크숍은 미래사회를 성장사회, 붕괴사회, 절체된 사회, 대변환의 사회의 네 가지 유형으로 제시하여 참여 당사자들이 함께 특정 주제에 대해 미래 비전과 대안을 모색해 가는 참여적 연구이자 집단지성 창출 과정이다[3].

미래워크숍을 활용한 임언 외(2017)의 연구에서는 특성화교 교사 43명을 대상으로 미래워크숍을 진행하여 이들이 인식한 미래사회와 미래의 직업교육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미래워크숍은 미래사회 시나리오를 경험하고, 미래사회에 대한 비전을 수립하는 1부 과정과 미래사회 경험에서 도출한 미래 직업교육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미래 직업교육에 대한 비전을 수립해 나가는 2부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미래워크숍 자료는 집단별 녹취록과 서면 자료를 통합하여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시스템인 '텍스톰'(www.textom.co.kr)을 활용해 텍스트마이닝 하였다. 분석 결과 가장 중심이 되는 개념으로 계속성장사회에서는 사람(59), 일(32), 사회(27), 로봇(24), 여가(20)가, 절체사회에서는 사람(57)과 사회(55), 삶(36)이, 붕괴사회에서는 사람(37)과 사회(26)가, 대변환의 사회에서는 사람(70), 기계(29), 사회(22), 효율(19)이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들은 절반이상이 절체사회를 선호했고, 가장 실현 가능한 사회로는 60%가 성장사회를 선택했다. 2부에서 진행된 미래사회의 직업교육에 대한 전망에 있어서는 미래 교육 내용, 방법, 교사의 위상에 대한 생각들이 도출되었다[3].

2013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정책 지향적 미래 시나리오 워크숍'에서는 국내 기업, 정부출연 연구소, 정부 산하 기관, 대학 등에서 참여한 30여 명과 함께 '2030년 직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 미래워크숍은 공공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미래연구의 네 가지 단계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첫 번째 문제 설정 단계에서는 '과학기술 발전의 결과로 형성될 2030년, 한국사회에 떠오를 새로운 직업은 무엇일까?' 라는 문제가 설정되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미래 변화 동력 파악 및 시나리오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참여자들은 2030년 가장 중요한 변수로 한반도 통일과 세계 경제 호조 여부를 선택했다. 네 가지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각각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도출한 참여자들은 세 번째 단

계에서 다양한 미래사회의 현재적 의미를 반영하여 비전 작성을 하였고, 네 번째 단계에서는 작성된 비전을 사회와 공유하는 소통 방법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30].

한편, 박성원, 황윤하(2013)는 미래적응력의 개념은 개인이나 조직이 다양한 변화를 예상하고, 준비하며, 필요한 변화를 창조하는 능력을 뜻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미래를 예상하고 준비할 때 강화된다고 하였다[11]. 미래적응력은 개념상 배움력을 통한 미래에 대한 적응역량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네 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되며,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능력(새로운 의미 생성력), 배움을 실천하는 능력(실천력), 주류의 의견에 도전하는 능력(사회개조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배우고 소통할 때 더 많이 배우는 능력(의사소통력)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미래적응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12].

박성원, 황윤하(2013)는 미래워크숍을 통해 참여자들의 미래적응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다[11].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을 추적조사 하여 46명이 응답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미래인식 수준의 향상과 및 미래적응력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추적조사결과 미래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 인식,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 증가, 개인의 행동 변화, 사회적 관심과 미래연구에 대한 관심 증가, 지인들과 관련된 내용을 토론하게 됨 등 워크숍 이후 참여자들의 대부분의 삶에 크고 작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6].

박성원강경균(2014)이 특성화고 학생 16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미래워크숍에서도 사전-사후 검사결과 미래효능감은 1차를 제외한 2, 3차 미래워크숍을 경험한 경우 미래효능감의 하위영역(새로운 의미 생성력, 실천력, 사회개조력, 의사소통력) 모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12]. 또한, 박성원, 황윤하 등(2014)이 실시한 미래워크숍에는 대학생 100명과 일반인 102명이 참여했으며, 미래워크숍 이후 전반적으로 대학생 집단과 일반인 집단 모두 미래적응력 점수가 높아진 것이 확인되었다[16].

이를 종합해보면 미래워크숍은 미래연구에 자주 활용되며 참여자들의 미래적응력 향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연구 방법

#### 3.1 연구 대상

본 연구를 위하여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진로직

업상담가 25명을 대상으로 2018년 6월 23일 미래워크숍을 진행하였다.

Table 1. Workshop Participant

Division	Age	Sex	Career period	Division	Age	Sex	Career period
A	55	M	5	N	52	F	5
B	58	F	3	O	39	F	4
C	52	F	9	P	37	F	10
D	50	F	5	Q	44	F	4
E	54	F	7	R	43	F	9
F	51	F	28	S	40	F	5
G	63	F	9	T	44	M	5
H	52	F	8	U	28	M	7
I	60	F	10	V	29	M	3
J	61	F	6	W	44	F	5
K	50	F	8	X	48	F	8
L	51	F	11	Y	26	F	3
M	50	F	3				

N= 25, Mean Age= 47.3, Average Career= 7.2

특별히 참여자들의 성별, 나이, 경력에는 제한을 두지는 않았다.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47.3세이며, 평균 경력은 7.2년이였다. 참여자들 대부분은 미래 직업세계의 변화와 진로직업상담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역량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참여자들 구성은 Table 1과 같다.

#### 3.2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미래워크숍 진행단계에서 사용한 시나리오는 미국 하와이 미래연구소에서 개발한 미래비전 프로세스에 기초해서 만든 박성원(2013)의 시나리오를 재구성하였다. 단, 참여자 수를 감안하여 선행연구에서 미래 변화 시나리오로 제시된 계속성장사회와 대변환 사회를 중심으로 미래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재구성된 시나리오는 미래워크숍 진행 경험이 있는 교수를 통해 검토를 받고 최종 선택하였다[3,11].

본 연구에서는 미래워크숍 참여자들에게 미래적응력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박성원, 황윤하(2013) 설문지를 일부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11]. 미래적응력 척도는 방재임(2010)의 배움수준을 측정하는 척도를 가지고 박성원(2012)이 4개의 하위척도로 재구성하여 개발한 척도이다[29,31]. 미래적응력 대한 설문지는 새로운 의미생성력 5문항, 실천력 5문항, 사회개조력 5문항, 의사소통력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 계수는 .76~.90으로

Table 2와 같이 나타났다. 측정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미래적 능력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Table 2. Future Adaptability Measurement Tool

Division		Question	Cronbach's
Future adaptability	New Meaning Generation Ability	1~5	.82
	Practical Ability	6~10	.76
	Social Renovation Ability	11~15	.77
	Ability Communicative	16~20	.90

### 3.3 연구절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피드백을 통해 결과를 도출해 가는 델파이조사와는 달리 미래워크숍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참여하여 특정주제에 대한 토론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한다. 본 연구는 크게 진로직업상담가를 대상으로 미래워크숍을 진행하는 단계와 서면 작성 자료와 토론 내용을 분석하는 단계로 진행되었다.

2018년 6월 23일 미래워크숍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었다. 미래워크숍의 유연한 진행을 위하여 직업학 박사과정 전공자 3명과 직업상담전문가가 퍼실리테이터로 섭외하였으며, 이들과는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사전 운영 회의를 가졌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된 미래워크숍 1부에서는 미래적응력에 대한 사전검사를 시작으로 미래사회의 조망을 위한 특강이 진행 되었다. 이어서 참여자들은 미래사회에 대한 시나리오를 보고, 미래사회의 모습에 대한 토론을 하였으며 토론한 내용은 정리하여 참여자들 모두에게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퍼실리테이터들은 미래사회에서 살아가게 될 때의 기회와 공포, 두려움 등에 대한 생각들을 이끌어 내고, 그룹별 참여자들의 토론 내용을 모두 동의하에 녹음하였다.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미래워크숍 2부에서는 역량에 대한 특강을 진행한 후, 미래의 노동현장과 직업현장의 모습을 상상해 보고, 진로직업상담가들이 갖추어야 할 직무역량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그룹별 토론한 내용을 정리한 후 참여자 전원에게 결과를 공유하였다. 토론의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미래사회의 진로직업상담가에게 필요한 역량에 대해 브레인스토밍 방법으로 다양한 내용을 제시하였고, 그룹핑 작업을 통해 제시된 내용들을 범주화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2부를 마무리 하면서 미

래적응력에 대한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미래워크숍에서 참여자들이 서면 작성한 자료와 토론한 내용은 분석을 위하여 모두 수거하여 취합 하였다.

### 3.4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분석 1단계에서 연구자들은 미래워크숍을 통해 얻어진 토론 녹음 내용은 모두 전사하여 주제별로 서면 작성된 자료들과 통합하였다. 통합된 자료들은 각 참여자들이 전망한 미래사회의 모습, 노동시장과 직업상담 현장의 모습, 진로직업상담가에게 요구되는 미래역량 등으로 정리하였다.

분석 2단계에서는 정리된 주제별 내용에서 연구자들은 넷마이너를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단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3단계에서는 참여자들의 미래인식, 미래노동현장과 직업상담현장의 모습, 진로직업상담사에게 필요한 미래역량 결과 도출을 위해 3회에 걸친 합의과정을 거쳐 각 내용별 주제어를 선택하였다.

분석 4단계에서는 미래적응력 변화에 대한 결과도출을 위해 사전·사후 검사 내용을 대응표본 T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절차와 주제 도출과정에서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해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교수자에 의한 검토를 받았으며, 이를 반영하여 최종 결과를 도출하였다.

## 4. 연구 결과

### 4.1 진로직업상담가가 인식한 미래사회

진로직업상담가들이 인식한 미래사회의 모습에 대해 서면자료와 미래워크숍의 토론 자료를 네트워크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주요 단어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진로직업상담가들이 인식한 미래의 모습은 로봇,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기계가 우리 기본적인 삶에 들어오면서 기술로 인해 삶이 더욱 편리해지고, 장애인, 고령자 등이 살아가기에도 좋은 사회가 될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미래인식에 있어서 긍정적 측면은 첨단기술의 발전과 기계화, 인공지능으로 인한 편리함, 복지환경 개선, 의료수준 향상, 신체적 장애 극복과 생명연장, 여가시간의 증가와 삶의 질 향상, 실력중심 사회 등이었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환경문제 가속화, 신종질병

발생, 사생활 보호의 어려움, 정보격차로 인한 소득불평 등과 양극화, 중·고령자 적응의 어려움, 사회·경제적 불균형, 물질만능주의의 확대, 인공지능기계의 이권 다툼으로 인한 사회문제 발생 등으로 나타났다.

Table 3. Keyword Analysis Result Related to Future Recognition

No.	Keyword	Frequency
1	Robot	18
2	Artificial-intelligence	17
3	Reisure	14
4	Education	13
5	Convenience	11
6	Disabled person	10
7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10
8	Aging	9
9	Machine	9
10	Human	8
11	Polarization	8
12	Development	7
13	Big data	7
14	Skill	6
15	Health	6
16	Communication	5
17	Freedom	4
18	Emotion	4

위와 같은 주요 키워드는 참여자들의 토론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약개발이나 인공지능기를 만들거나 해서 생명연장이 되서 좀 오래 살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또 빅데이터로 인해서 이런 시대가 더 빠르게 다가올 것 같아요.” (Q 진로직업상담가)

“학벌이나 배경보다는 실력으로 인정받는 사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탈학교 현상과 실력이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J 진로직업상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으로는 환경이 많이 걱정이 될 거 같아요. 이제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이나 모든 생물체를 같이 존중하면서 인간만 생각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생각을 했어요.”

(O 진로직업상담가)

“미래에 기술발전이나 편리함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그런 거에 좀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 같고, 정보화 사회이다 보니 정보가 많은 사람들은 소득을 창출할 거 같고 소득격차가 많이 벌어질 거 같아요.” (B 진로직업상담가)

## 4.2 진로직업상담가가 인식한 미래 노동시장 및 직업상담 현장

### 4.2.1 미래 노동시장 모습

진로직업상담가들은 미래 노동시장의 가장 큰 변화요인을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뽑았다. 이러한 변화로 첨단 기술 직업의 증가, 노동시간과 장소의 자율화, 일과 여가의 균형, 고령화에 따른 평생 직업교육 증가, 교사 수요 감소와 환경전문가, 심리전문가의 수요증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책강화 등을 전망했다. 또한 인체용 칩 관련 제조업의 발전, 3D프린터 이용 자급자족 증가로 인한 물류산업 붕괴, 우주산업 관련 직업 등이 증가하고 빅데이터나 로봇과 인공지능 등으로 인해 많은 직업이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참여자들의 미래의 노동시장에 대한 토론 내용을 종합해보면 과학기술의 발전은 노동시장에서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가져올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기술이 발전하니까 첨단화 다양화 되어서 새로운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 같아요.” (R 진로직업상담가)

“직업은 있지만 직장은 정해지지 않을 수 있다. 재택근무 이런 것도 가능하고 노동의 자율화, 시간, 장소 다 자율화 될 거 같아요.” (E 진로직업상담가)

“고령화 관련된 새로운 시스템이 나오고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더 체계화되고 평생 직업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교육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U 진로직업상담가)

“이제 교사는 수요가 줄어들고 그런 부분을 기계가 대체하게 된다던지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전문가가 많아지지만 심리적인 부분은 기계가 대체하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부분의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봤어요.” (M 진로직업상담가)

“로봇이 스스로 러닝을 해서 스스로 발전을 하다 보면 로봇도 감정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심리상담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폭력성이 있는 로봇으로도 바뀔 수 있잖아요.” (I 진로직업상담가)

#### 4.2.2 미래 직업상담 현장 모습

진로직업상담가들은 상담 현장 모습의 큰 변화로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직업상담가의 출현, 상담현장에서의 로봇상담사 등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상담 및 교육 등을 뽑았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의 협업시스템 가동, 진로직업상담가의 재교육과 자기개발 증가, 로봇과 빅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상담사 수요 감소 등을 전망했다. 이는 앞서 토론한 미래의 노동시장 속에서의 직업의 변화에 따라 진로직업상담현장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직업이 세분화 될 거고 특히, 4차 산업으로 더 세분화 될 거기 때문에 그거랑 연관이 되는 상담사가 따로 있어야 하지 않나, 그거를 익히는 작업도 필요할거고.” (L 진로직업상담가)

“로봇직업상담사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로봇이 우리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암기력이나 데이터 측면에서 인간을 뛰어 넘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쓸 수 있잖아요.” (X 진로직업상담가)

“직업이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 새로 생기는 직업이 있기도 하겠죠. 그렇다면 나머지 데이터화 할 수 있는 것들은 데이터로 다 정리되어 나오기 때문에 진로상담사가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E 진로직업상담가)

#### 4.3. 진로직업상담가의 미래역량

워크숍 내용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미래사회 진로직업상담가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Table 4와 같다. 미래역량으로 정보처리 능력, 전문상담능력, 의사소통능력, 윤리의식이 도출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보처리 능력의 하위영역으로 컴퓨터 활용 능력, 직업정보수집 능력, 정보통합 능력, 정보적용 능력 등이 포함되었고, 전문상담 능력의 하위영역으로는 객관적 사고 능력, 종합적 사고 능력 공감 및 경청 능력, 직업 매칭 능력이 도출되었다. 또한 의사소통능력에서는 언어구사력, 인적네트워크 활용 능력, 친화력, 갈등관리 능력이, 윤리의식에서는

세부적으로 인간중심사고능력, 비판능력, 직업윤리가 하위영역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장 최근 조명기(2019)가 앞으로의 대학 직업상담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시한 직업상담 직무수행역량과 공통점을 갖고 있다[10]. 특히 직업상담사의 공통역량 군으로 제시된 진로정보역량, 진로상담역량, 전문가윤리, 개인자질역량은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정보처리능력, 전문상담능력, 윤리의식, 의사소통능력과 비슷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Table 4. Analysis of Future Competency of Career Vocational Counselors

Subject category	Sub-category	Frequency
Information processing ability	Computer Application Ability	8
	Job Information Gathering Ability	8
	Information Integration Ability	7
	Ability to Apply Information	5
Professional counseling ability	Comprehensive Thinking Ability	7
	Empathy Listening Ability	6
	Job Matching Ability	6
	Self-Development Ability	5
Communication ability	Verbal Speaking Ability	6
	Human Network Utilization Ability	6
	Affinity	4
	Conflict Management Ability	4
Ethics	Human-centered Thinking Ability	6
	Critical Ability	4
	Occupational Ethics	4

참여자들이 구술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보처리능력은 필수인 것 같아요. 신 직업에 대한 이해와 직업에 대한 정보적용능력, 통합능력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J 진로직업상담가)

“전문 상담능력이 필요할 거 같아요. 상담을 위해서는 종합적 사고를 해야 할 거 같고 공감능력과 경청은 물론이고.” (I 진로직업상담가)

“언어구사력이 제일 좋아야 한다. 그거는 로봇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리고 로봇이 추출할 수 있는 직업의 한계 그런 일을 발견하면 그거를 우리가 하는 거지.” (V 진로직업상담가)

“윤리를 중시해야 되고. 지금이나 그때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도덕적 인성이 더 필요할 거 같아요.” (H 진로직업상담가)

#### 4.4 진로직업상담가의 미래적응력 변화

미래워크숍을 통해 진로교육 및 직업상담 종사자들의 사전 사후 미래적응력을 조사한 후 그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대응표본 t검증을 통해 미래적응력의 하위 구인인 새로운 의미 생성력, 실천력, 사회개조력, 의사소통력에 대해 분석한 결과, 새로운 의미 생성력의 사전-사후 적응력의 차이가 가장 높게 상승하였으며 (평균차=-.424),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t=-3.703, p=.001). 그 다음 의사소통력(평균차=-.360)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으며(t=-2.521, p=.019), 실천력(평균차=-.352)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t=-2.323, p=.029). 끝으로 사회개조력(평균차=-.288)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어(t=-2.305, p=.030) 미래적응력 하위 4가지 요인 모두 미래워크숍을 통해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5. The Change of Future Adaptation of Career Vocational Counselors (N=25)

Division	Advance Inspection		Post-Test		t	p
	M	SD	M	SD		
New Meaning Generation Ability	3.87	.630	4.30	.455	-3.703**	.001
Practical Ability	3.86	.699	4.22	.603	-2.323*	.029
Social Renovation Ability	3.92	.693	4.21	.537	-2.305*	.030
Communicative Ability	4.15	.659	4.51	.443	-2.521*	.019

\*\*p<.01, \*p<.05 / df 자유도(N-1)=24

### 5. 결론 및 논의

사회가 전반적으로 급변하는 상황에서 진로직업상담 현장에서는 전통적 방식에서 탈피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래워크숍을 통해 진로직업상담가들이 인식한 미래사회의 모습을 살펴본 후 변화될 사회에서 이들에게 요구되는 미래역량을 도출하였으며, 이들의 미래적응력 변화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종합한 결론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직업상담가들은 미래사회를 긍정적, 부정적

인 시각 양측의 관점으로 보고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워크숍 내용을 키워드로 분석한 결과 로봇, 인공지능, 여가, 교육, 편리, 장애인, 빈부격차, 고령화, 기계, 인간 등의 단어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 키워드들은 첨단기술의 발전과 편리함, 복지와 의료수준 향상, 장애극복과 생명연장, 여가시간 증가와 삶의 질 향상, 실력중심 사회 등의 맥락에서 긍정적인 단어로 활용되었다.

둘째, 진로직업상담가들은 미래 노동시장의 변화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을 주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노동시간과 장소의 자율화, 일과 여가의 균형 등 직업형태 및 일자리 형태의 변화도 주요 변화로 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노동환경, 노동형태, 노동정책에 이르기까지 사회전반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공통된 의견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진로직업상담가들이 인식한 진로직업상담 현장의 변화는 상담시장의 확대와 전문성 강화로 해석될 수 있다. 미래 노동시장이 보다 정교화 되고 복잡해지는 동시에 변화속도까지 빨라지면서 진로직업상담가가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는 반면 로봇상담사나 빅데이터 활용으로 진로직업상담가의 수요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 예상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상담가 수요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나온 것은 미래의 상담현장에서 진로직업상담가들의 전문성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인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넷째, 본 연구를 통해 진로직업상담가에게 요구되는 미래역량으로 정보처리 능력, 전문상담 능력, 의사소통 능력, 윤리의식이 도출되었다. 이는 앞서 진로직업상담가들의 역량을 연구한 선행연구에서도 제시되었던 역량들이다[7,10,26,27].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예측한 미래역량은 새로운 역량이 도출되었다기보다 기존 역량 중 미래사회에서는 일부 역량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정보처리 능력은 선행연구에서 전문상담 능력, 의사소통 능력에 비해 중요도가 다소 낮은 역량이었으나 미래워크숍을 통해 진로직업상담가에게 요구되는 미래역량 중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는 빠르게 변화되는 노동시장을 읽어내는 객관적인 안목이 진로직업상담가에게 중요해질 것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진로직업상담가를 위한 교육훈련 및 연수에서 직업의 정보, 노동시장 및 기술의 변화, 고령화 및 저출산 등의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정보와 함께 직업상담, 매칭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처리방법론까지 추가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미래워크숍을 경험한 진로직업상담가들의 미래적응력 변화를 분석한 결과 미래적응력의 하위 요인 새로운 의미 생성력, 실천력, 사회개조력, 의사소통능력 모든 영역이 참여 전보다 참여 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미래워크숍 경험이 미래적응력을 향상시킨다는 앞선 선행연구[3,11,12,16]를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미래워크숍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창의적으로 상상하고, 준비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누구보다 발 빠르게 미래사회의 변화를 인식하고 미래관련 정보를 수집해야 할 진로직업상담가들을 대상으로 미래워크숍을 실시하여 이들의 미래인식과 필요한 미래역량을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적응력 향상에 대한 미래워크숍의 효과성을 검증해보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특히, 진로직업상담가들은 직무 현장에서 내담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미래워크숍을 통한 진로직업상담가들의 미래적응력 향상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참여자 수가 많지 않고,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진로직업상담가들만 진행된 연구이기 때문에 결과를 전체적인 의견으로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진로직업상담가가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발달시켜나갈 수 있도록 경력경로를 구축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와 이들의 미래역량에 관한 다양한 후속연구 이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해 누구보다 더 선도적으로 준비해야하는 진로직업상담가들의 미래워크숍 참여는 향후 교육, 연수형태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미래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진로직업상담가에게 필요한 미래역량은 진로직업상담가의 직무교육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미래워크숍은 다른 대상층에서도 그 효과성이 보고되고 있는 만큼 청소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대상에게 적용하면 미래적응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REFERENCES

- [1] C. B. Frey & M. A. Osborne. (2013). The future of employment: How susceptible are jobs computerisation?.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114(C), 254-280.  
DOI : 10.1016/j.techfore.2016.08.019
- [2] WEF. (2016). The Future Of Jobs, World Economic Forum..  
<https://www.weforum.org/reports/the-future-of-jobs>.
- [3] E. Lim, J. Y. An & H. K. Kwon. (2017). *Vocational of education i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Era*. Sejong : KRIVET.
- [4] H. J. Jang. (2019).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Future Societies and Career Exploration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of Education Using Futures Workshop.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32(1), 46-66.  
DOI : 10.24062/kpae.2019.32.1.43
- [5] J. H. Chang, S. G. Han, J. Y. Lee & Y. S. Seo. (2013). Future Worklife Scenarios: A Vocational Education Perspective.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32(4), 41-58.
- [6] B. W. Kim. (2017). Outlook of Changes in Future Vocations and Direction of School Counseling. *Journal of practical Engineering Education*, 9(2), 175-182.  
DOI:10.14702/JPEE.2017.175
- [7] S. H. Kim & J. K. Tak. (2011). Development of the Career and Vocational Counselor`s Competences Scale and Validation.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 General*, 30(2), 461-481.
- [8] H. S. Yoo. (2009). *Developing a competency model for career counseling professionals*.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9] Y. J. Choi & J. Y. Lee. (2014). Validation of Competency Self-Assessment Scale for Career Counseling Performanc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5(4), 1475-1494.  
DOI : 10.15703/kjc.15.4.201408.1475
- [10] M. G. Jo. (2019). Development of Career Counseling Competency Model for Career Counselors in Universitie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 1551-1564.  
DOI : 10.22143/HSS21.10.2.109
- [11] S. W. Park & Y. H. Hwang. (2013). Foresight Study Based on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V- 4. Assessing Individuals' Perceptions and Their Adaptability on the Future in South Korea.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1-190.
- [12] S. W. Park & K. K. Kang. (2014). Research on Future Jobs of Youth that has been Viewed by Futures Workshops.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27(3), 225-243.
- [13] J. Bright. (2017). *Chaos theory of careers tutorial : using the change perception index*.  
<http://www.brightandassociates.com.au/wordpress/chaos>
- [14] J. A. Shin. (2018). *The Cluster of Future Cogni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Related factors in University students*. Master dissertation, Konkuk University, Seoul.
- [15] S. H. Cho & M. K. Jin. (2015). The Mediating Effects of Optimis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ts. *Asian Journal of Child Welfare and Development*, 13(1), 95-112.

[16] S. W. Park, Y. H. Hwang, K. J. Cho, J. Y. Seo & M. Song. (2014). Assessing Individuals' Perceptions and Their Adaptability on the Future in South Korea(the 2rd year).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1-200.

[17] S. W. Pak, S. A. Jin, Y. H. Hwang, K. J. Cho & M. S. Song. (2015). Assessing Individuals' Perceptions and Their Adaptability on the Future in South Korea(the 3rd year).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1-215.

[18] H. G. Shin. (2018). *A Study on the Changes of Future Society Perceived by Youth and the Level of Aspiration about Youth Policy*. Doctoral dissertation, Myongji University. Seoul.

[19] Y. J. An & Y. S. Iem. (2017). A Study on the University Students Recogni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Seeking the Direction of Career Educat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18), 329-351.  
DOI : 10.22251/jlcci.2017.17.18.329

[20] T. S. Rhee, Y. S. Kim & S. W. Hahm. (2018). The Influence of Attitude and Satisfaction about Elderly-Education on Social Satisfaction: The Moderating Effect of Optimism and Control Over the Future,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4), 583-596.  
DOI : 10.21742/AJMAHS.2018.04.72

[21] S. H. Lee. (2012). *The effects of eco-friendly clothing teaching through Future Problem Solving Program(FPSP) on creative character cultivation*. Master dissert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eongju.

[22] D. S. Kim & Y. S. Lee. (2012). Effects of Future Problem Solving Program on Creativity and Scientific Attitud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arth Science Education*, 5(1), 51-59  
DOI : 10.15523/JKSESE.2012.5.1.051

[23] Y. M. Yang. (2017). Effect of Creative Problem Solving Team Projec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on Creativity and Class Satisfaction. *Global Creative Leader*, 7(1), 43-64.

[24] C. S. OH. (2018). Analysis on effect of convergence education program as education plan to prepar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 Focusing on future key competency for middle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2(2), 23-58.

[25] C. I. Yun, M. S. Kim, S. K. Youn & M. J. Park. (2007).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and Dimensions of Competence as Human Ability.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5(3), 233-260.

[26] D. I. Yook. (2017). Textmining-Based Analysis for Duty and Knowledge structure of Vocational Counseling Service Industr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9), 366-376.  
DOI: 10.5762/KAIS.2017.18.9.366

[27] H. S. Yoo & C. D. Kim. (2011). An Exploratory Study on the Competency Model for Career Counseling Professionals. *Asian Journal of Education*, 12(2), 241-268.

[28] H. J. Son. (2016). An Exploratory study on Academic Characteristics of Futures Studies. *The Korea Association for Futures Studies*, 1(1), 15-35.

[29] S. W. Park. (2012). *Fostering a political society in south korea through participation in futures studies*. Doctoral dissertation. Hawaii University, Hawaii.

[30]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2013). [STEPI Future capacity enhancement project] Policies-oriented future scenario workshop . *future horizon* (16). 16-19.

[31] J. I. Bahng. (2010). *A study on the scale of erudition*. Master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염 인 숙(In-Sook Yeom)

[장학원]



- 2012년 2월 :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평생교육과 HRD(석사)
- 2019년 8월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직업학과 박사수료
- 2017년 10월 ~ 현재 : 꿈세상에설계 협동조합, 이사
- 2019년 1월 ~ 현재 : 드림인사이드

대표

- 관심분야 : 미래사회, 생애설계, 중장년, 직업상담
- E-Mail : towyoung2000@hanmail.net

임 금 희(Geum-Hui Lim)

[장학원]



- 2016년 2월 : 경기대학교 행정사회복지대학원 직업학과(석사)
- 2017년 9월 ~ 현재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 2017년 3월 ~ 현재 : 협성대학교 IPP 센터 팀장
- 관심분야 : 직업상담, NCS, 일학습병

행, 직업훈련

- E-Mail : moi0204@naver.com